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

“因果 지중함을 알아야 진짜 불자”



보륜 성오 대종사는… 1959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 불복장작법의 전승자로서 불교문화진흥에 진력하고 있으며 나주불교의 산증인으로서 사부대중을 지도하고 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에는 햇살과 바람을 먹은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피어나는 생명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도착한 전남 나주. 사실 이런저런 일로 여러 번 나주를 ‘스치듯’ 오가기는 했지만 길게 머물러 본 적은 드물다.

나주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심향사(尋香寺)다. 나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나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두 번째는 심향사 주변의 학교들이다. 나주지역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의 ‘전설’을 너무 많이 들어왔던 터라 금성고등학교와 나주공고 등의 외관이라도 꼭 보고 싶었다. 심향사 좌우의 나주공고와 금성고를 먼저 둘러보고 심향사로 향했다.

“마음을 찾는 향기로운 도량”

심향사의 명물 모과나무와 인사하고 극락보전에 들러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 팔관선원(八關禪院)으로 향했다. 나주불교의 산 역사이자 심향사와 주변 학교들의 ‘공통분모’인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팔관선원 현판을 보니 절 입구에 서 있는 비(碑) ‘고려 팔관회 도량 심향사’ 글씨가 생각났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야 했다.

나주 팔관회의 역사는 고려 현종이 1010년 11월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 12월 27일 출궁해 나주까지 피난을 온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나주 객사 인근에 도착한 현종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심향사에서 매일 부처님께 국태민안(國泰民安) 기도를 올렸다. 나주 객사에서 심향사로 가는 길목은 현재 ‘사매기’라고 불린다. 현종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건넌 다리를 사마교(駟馬橋)라고 했는데 이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성오 스님은 “피난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현종은 나주에서 팔관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현종이 나주를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의미”라며 “나주 팔관회의 중심 사찰이 심향사였다. 그래서 불자들이 공부하고 정진하는 장소를 팔관선원이라 명명했다”고 전했다.

팔순을 앞둔 어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오 스님은 정정했다. “내가 마흔아홉 밖에 안 됐어요. 하하.” 스님의 농담이 진담처럼 들릴 정도다.

스님이 내려준 차를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선 마이크와 큰 칠판.

“3월부터 2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불교입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뒷방에 앉아 있기보다 자주 사람들을 만나야 저도 젊어지고 절도 활기차고 나주불교도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듣던 대로였다. 포교와 교육은 물론 불교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선지식(善知識)이 바로 성오 스님이다. 차를 마시기 전, 오래전부터 듣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바로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한 고등학생 포교의 ‘전설’이다.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성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한 스님의 증언은 이렇다.

“젊으셨던 만큼 대단히 진보적인 어른이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신행활동을 고민하셨어요. 때로는 삼촌 같았고 또 때로는 부모님 같았어요. 법당에서만큼은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 중의 스승이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불교를 잘 배워서인지 청년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큰스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기수에 한 명은 출가하자고 우리끼리 발원을 했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법구경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전생이 알고 싶다면 현생을 살피고

내생이 궁금하면 너의 행동을 봐라”

불자라면 모름지기 인과를 파악해야

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전승 보유자

은사 어깨너머로 불복장작법을 익혀

“깨달음의 과정을 불상에 모시는 것”

성오 스님이 ‘심향사 불교학생회’를 만들고 나서는 기수별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절로 찾아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법회 때마다 100명 안팎의 청춘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성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한 스님으로는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 등이 있다. 얼마 전 〈청화전기: 위대한 스승〉을 쓴 김용출 작가도 학생 시절 성오 스님에게 불교를 배웠다. 성오 스님은 “불교를 대표하는 인재를 1년에 1명씩만 키우자”라는 서원을 가지고 포교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아이들 스스로 절에 나오고 또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놓으면 이틀이면 없어져요. 라면 사는 일이 제 주요한 일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나주 시내에 괴한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학생들이 절에 와서 저를 지켜준다고 며칠 밤을 같이 새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1년에 한 명씩만 키워내자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불교를 대변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다들 훌륭하게 자라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오 스님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일화들이었다. 그렇다면 성오 스님은 언제 심향사와 인연이 닿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사스님은 부처님 다음 부처님”

“저의 불연(佛緣)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절에 오게 된 것은 집에 있으면 단명한다는 어른들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아들 살린다고 저를 절로 보내셨어요. 열세 살 때 집 인근의 광주 관음사로 가니 ‘할아버지 스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이 바로 은사 장조 큰스님이셨습니다. 큰스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무려 60살이었습니다. 손상좌나 증손상좌뻘인 애기를 상좌로 받아주셨습니다.”

장조 스님은 근현대 백양사를 지켜낸 어른이다. 한국전쟁 당시 낮에는 국군, 밤에는 북한군이 백양사를 점령하면서 당시 주지를 살던 장조 스님의 상좌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성오 스님이 장조 스님을 시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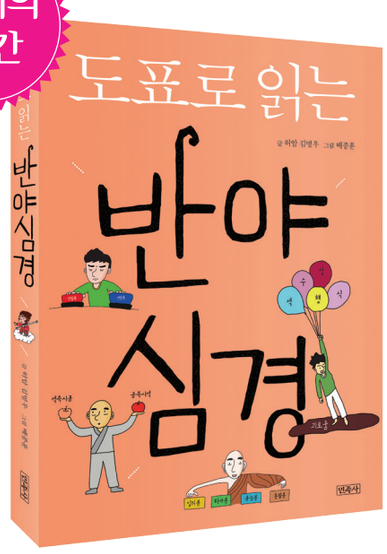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마당도 넓고 방도 많은 절에 가니 조금 생소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관음사 법당은 다다미가 있는 일본식 법당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위엄 있게 보였어요. 어린 마음에 절에서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